

김영식, 『정약용의 문제들』 (해안, 2014), 304쪽

구만옥†

한국 근대 학술사에서 정약용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30년대의 이른바 ‘조선학 운동’이었다. 정약용 연구의 초기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이섭이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도 1936년의 ‘서세(逝世) 백년 기념 행사’였다.¹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이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개했던 ‘조선학 운동’은 『여유당전서』의 출간과 함께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당시의 학계에는 ‘조선학 운동’에 비판적인 인물들도 있었다. 경성제대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진단학회 계열의 인물들이 이에 속한다. 그들은 동일한 관점은 아니었지만 ‘조선학 운동’에 내포된 비과학성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었다. 김태준(金台俊, 1905-1949), 신남철(申南澈, 1903-?), 한응수(韓應洙)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김태준은 자신은 “다산을 ‘조선의 태양’으로 보지 아니하고 ‘조선의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약용의 학문을 탐구할 때 ‘시대성’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그의 관점을 여실히 보여준다.²

정약용은 ‘조선학 운동’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문제적’ 인물이다. 그것은 해방 이후 본격화된 ‘실학’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정약용은 ‘실학의 집대성자’로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의 ‘개혁적’, ‘근대적’, ‘진보적’ 면모와 ‘탈주자학적’ 사상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필연적으로 ‘실학’에 대한 이의 제기

† 경희대학교 사학과, pero@khu.ac.kr

¹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 思想 研究』 (韓國研究圖書館, 1959)의 ‘自序’ 참조.

² 김태준, “眞正한 丁茶山 연구의 길—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비판함”, 『金台俊 文學史論選集』 (現代實學社, 1997). 이 글은 ‘天台山人’이라는 필명으로 『朝鮮中央日報』에 1935년 7월 25일에서 8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했던 것이다.

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실학’으로 대변되는 조선 후기 학술사·문화사·사상사에 대한 구조적 이해에도 연쇄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진보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기존 연구 성과와 전면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김영식의 『정약용의 문제들』은 바로 이 민감한 사안을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만하다.

오랫동안 중국 과학사를 연구해 온 저자는 일찍부터 한국 과학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하고, 새로운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³ 저자의 이러한 태도는 정약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던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은 기존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임과 동시에 정약용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는 저자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뒤늦게 정약용을 연구하면서 느끼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저자가 이해한 측면과 그간 학계에서 받아들여진 측면들과의 모순과 불일치였다고 토로한다. 특히 저자는 정약용을 ‘탈주자학자’로 평가한 기존 학계의 논의를 수긍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기존의 정약용 연구자들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 연구자들이 주회를 어떤 틀에 가둠으로써 주회 체계가 지난 폭넓은 가능성에 눈을 감고 오히려 자신들에 의해 그렇게 좁혀진 주회의 체계와 그 같은 ‘폭넓은 가능성’을 펼쳐낸 정약용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만을 주목함으로써 정약용이 주회로부터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80쪽, 각주 98).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는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을 조선 후기의 지적 맥락에 유의하면서 살펴보기를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지적 맥락의 주요 요소는 무엇일까? 당연히 주자학이 핵심적 요소이고, 따라서 ‘주회의 틀’과 ‘정약용의 틀’이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저자가 보기에 정약용은 주회 철학의 틀을 여전히 그의 사상적 기초로 삼고 있었고, 그가 시도한 것은 ‘주회의 틀’에 대한 수정·보완이었으며, 그의 학문적 목표는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주자학의 체계를 보완하여 참다운 유가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관점의 제시와 함께 저자는 정약용의 사상과 삶 전체를

3 김영식, “한국 과학사 연구의 문제와 전망”, 『동아시아 과학의 차이』 (사이언스북스, 2013), 196쪽.

관통하는 특징으로 ‘실용주의적’ 경향을 거론한다. 여기서 ‘실용주의적’ 경향이란 정약용이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을 추구하였으며, 실제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비능률과 불합리한 점들을 배격하면서 실천, 효용, 성과를 중시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적 여건과 그 속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지녔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저자는 이 책이 정약용의 ‘개혁적’, ‘진보적’, ‘독창적’ 면모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의 목표는 “그 시기를 살던 인물로서의 정약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19쪽)를 얻고자 함이고, 이는 역사 연구에서 지적·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저자의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나름의 일관된 관점을 제시했다. 그의 견해는 기존의 한국사, 한국 사상사, 실학 사상사, 과학사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새로운 질문이 던져진 것이다. 질문에 답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앞으로 학계에서 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질적으로 심화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의 문제 의식과 백민정의 『정약용의 철학』(이학사, 2007), 김선희의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천주실의』와 동아시아 유학의 지평』(심산, 2012)을 비교·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이 책과 같은 시기에 출간된 박석무의 『다산 정약용 평전—조선 후기 민족 최고의 실천적 학자—』(민음사, 2014)를 함께 읽는 것도 저자의 문제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